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4)



믿음의 식구들께,

이곳 민다나오는 어떤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전역 계엄령이 올해 말까지 다시한번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부족 지역 곳곳에 숨은 반군 세력들의 저항으로 외부인이 부족 지역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한 가지 큰 변화는 이슬람 인구가 많이 모여사는 민다나오 서쪽으로 부터 이슬람 자치법인 '방사모로 (Bangsamoro)' 라는 새로운 이슬람 법이 지역별로 찬반의 선거 이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득표를 얻어낸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이슬람 자치권을 얻었다는 승리의 분위기와 더불어 각 세력간의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보입니다. 또한 이슬람 자치법이 통과를 이뤄내지 못한 지역에서는 얼마전 카톨릭 성당에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등 긴장의 수위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치권을 얻어낸 지역이나 얻어내지 못한 지역 모두 이슬람 인구가 높은 편인데, 어느 지역이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현지 사역자들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법 통과 지지 집회



폭탄 테러 현장

가난한 필리핀 현지 교회에서는 자신의 교회가 자립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기에 아직까지 부족 지역과 이슬람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현지 목회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들을 깨우기 위한 목회자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초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지 지역 교회에서 불모지인 부족 지역과 이슬람 지역에 한명의 복음 전도자만 파송하더라도 민다나오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욱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곳 문화 속에서 훈련의 준비 과정과 가난한 현지 교회들의 자국 선교사 지원을 생각해 보면 가능할까란 의문도 생기지만, 반면에 곳곳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들과의 네트워크를



개종 후 믿는 이들의 연합 모임

통해서 가능할 것이란 확신도 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들과의 연합을 통해 조금씩 일들이 꿈틀거리며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다야 부족과 그외 다른 지역 사역자들을 위한 복음/선교 세미나

이곳 선교지에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에게 큰 믿음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저희 가정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저희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아픈인 아들의 건강 문제.. 저희 가정이 혼자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힘모아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능력의 한계를 보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역 학교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한 지노, 유나, 이안

감사 제목

1. 사건 사고도 많은 이 민다나오 지역에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 지노의 건강도 함께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
2. 민다나오 지역 부족 사람들을 포함하여 각지에서 오는 가난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원 직원들도 제자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
3. 민다나오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을 제자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
4. 지역학교의 모슬렘 학생들, 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스토리텔링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기도 제목

1. 이러한 민다나오 격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모슬렘과 부족 지역에 복음의 능력과 확장이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선교 훈련을 받게 된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특별히 새롭게 제자 양육을 받게 된 젊은 의사들이 복음이 더욱 필요한 이슬람과 부족 선교에 깨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정진아 선교사가 이슬람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며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 지역 학교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저희의 첫째 아들 지노의 혈당이 안좋아지면서 인슐린 주사를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상황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온 가족의 마음이 서로를 사랑하며 돕는데 지치지 않도록... 세 자녀가 이곳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아이들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겸손함과 사랑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사랑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다나오에서 복음에 빛진자 된 , 박상진, 정진아, 지노, 유나, 이안 드림